

“2040년부터 집값 장기 하락”



▲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서울 창신동 주택가 모습. 사진=서울시

한국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50년엔 전국 주택 100가구 중 13가구는 ‘빈집’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미글로벌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실질 주택 가격은 2040년 전후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9년 한국의 가구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수는 2039년 최고치(2387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2040년대부터는 가구 수 감소로 총주택수요량이 꺾여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란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 감소기에는 빈집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국 빈집 규모는 2040년 239만 가구(전체 주택의 9.1%)에서 2050년 324만 가구(1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고속열차 ‘KTX-청룡’ 운행 … 서울~부산 2시간 17분

한국의 고속열차 중 가장 빠른 새 고속열차 KTX-청룡이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된다.

지난 22일 jbc에 따르면 KTX-청룡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로 기존 KTX보다 20km 더 빠르고 좌석 간 간격도 15cm 더 넓다. 휴대전화 충전 설비와 220V 전원 콘센트, 좌석별 창문 등을 마련해 승객 편의시설도 개선했다.

KTX-청룡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100% 한국 기술로 만 만들어진 첫 고속열차이다. 기존 KTX는 앞뒤 동력 차가 전체 열차를 끄는 동력 집중식인데, KTX-청룡은 객차 모두가 동력과 제동하는 동력 분산식이다. 기관차가 있던 공간 등을 객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편당 좌석 수는 35% 가량 늘었다. 시속 300km에 도달하는 시간도 5분 16초에서 3분 32초로 30% 넘게 줄였다.

KTX-청룡은 속도가 빨라진 데다 정차역도 종착역인 서울역과 부산역 외에 두 개 역(대전, 동대구)에서만 정



▲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사진=코레일

차를 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간 이동 시간을 30분가량 앞당겨 2시간 17분 만에 주파한다.

5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하는 KTX-청룡은 경부와 호남선에 주중 하루 2회 투입된다. 코레일은 오는 2027년 KTX-청룡 17편성을 추가 도입해 수원, 인천발 KTX 등 신규 노선들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인들 사이 ‘밀프렙’ 인기 폭발

한국의 직장인들 사이에 ‘밀프렙족’이 늘고 있다. 밀프렙이란 식사(meal)와 준비(preparation)의 합성어로 일주일 치 식사를 한 번에 미리 준비해 놓고 끼니마다 꺼내 먹는 식단을 의미한다. 정해진 재료로 일주일 식단을 짜기 때문에 식단이 일주일 내내 비슷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낀 직장인들의 지갑사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평가이다.



▲ SNS에 게시된 밀프렙. 사진=hankyung.com

유하는 모습이다.

키워드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밀프렙’ 관련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4.61% 급증했다.

밀프렙을 담는 용기의 판매량도 뛰어나 늘었다. 2월 위메프가 당월 1일부터 14일까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도시락통’ 카테고리의 상품 거래액은 전월 동기 대비 90% 늘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밀프렙과 관련해 “단순히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는 것을 넘어 이젠 놀이처럼 즐기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